

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 겨루기

7-9일, 킨텍스에서 <IMID 2013> 열려 ... 초고해상도 기술·제품 공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10월7-9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IMID 2013>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전시회인 <IMID 2013>에는 88개 관련기업이 참가해 제품을 선보이며, 6만여명의 학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98인치·85인치 UHD(Ultra High Definition) LCD(Liquid Crystals Display)와 55인치 UH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splay), 일반제품보다 2배가량 빠른 응답속도의 모니터용 31.5인치 UHD LCD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98인치와 85인치 UHD LCD는 세계 최초로 240Hz 고속 구동방식을 적용해 무결점 화질을 구현할 수 있으며, 55인치 UHD OLED는 픽셀(Pixel)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방식을 채택해 생생한 영상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TV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포터블(Portable) 모니터 등을 위한 고해상도·저소비전력 디스플레이 솔루션도 공개한다.

LG디스플레이는 55인치 곡면(Curved) OLED TV, 일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색채 재현율을 유지하면서도 투명도를 15%까지 끌어올린 47인치 투명 LCD, 스마트폰과 TV용으로 개발된 4.5인치 및 UHD 55인치 무안경 3D제품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초고해상도 존을 별도로 구성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모니터, 노트북, TV에 이르기까지 UHD급 해상도를 구현한 초고해상도제품을 공개하게 된다.

또 베젤(테두리 두께)을 <0>에 가깝게 구현한 모니터 및 노트북용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얇은 3.6mm 베젤의 대형 3D 비디오월도 공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07>